

보도시점 (지 면) 8. 22.(화) 조간  
(인터넷) 8. 21.(월) 12:00

# ‘글로벌펀드’, 세계적(글로벌) 자본과 함께 ‘케이(K)-스타트업’ 해외진출 강력지원

- ‘글로벌펀드 선정결과’ 발표 … 1.3조원 규모 조성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023년 글로벌펀드 운용사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글로벌펀드 운용사’는 한국벤처투자가 사업공고 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출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7개를 선정했다.

\* (일정) 사업공고(5월) → 서류심사(6~7월) → 현장심사(7월) → 출자심의위원회(7월)

올해 ‘글로벌펀드’는 ‘모태펀드’에서 649억원을 출자해 1조 3,032억원 규모 이상 조성할 계획으로, 45개 해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운용사가 신청하여 출자금 기준 7.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경쟁률) 45개 펀드 총 4,911억 원 출자요청, 출자금액(649억 원) 기준 7.5:1 기록

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이 운용하는 ‘글로벌펀드’를 조성하여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해외투자를 받아 세계(글로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과 세계(글로벌) 투자자 간 연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

‘글로벌펀드’는 ’23년 6월말 기준 ‘모태펀드’에서 6,287억원을 출자하여 8조 8,515억원 규모 59개 기금(펀드)을 운용 중으로 미국 30개, 동남아 14개, 중국 8개, 유럽 5개, 중동 1개, 중남미 1개 등 전 세계에 걸쳐 분포해 있다.

‘글로벌펀드’를 통해 553개 국내기업이 ‘모태펀드’ 출자액의 1.6배에 달하는 1조 64억원을 투자받았으며, 대표적 사례들로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컬리 등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영 장관은 “‘글로벌펀드’를 통해 구축한 해외 연계망(네트워크)을 기반으로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투자유치와 세계(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 취임 이후 중소기업부는 ‘미국, 사우디와 공동펀드 조성’, ‘사우디 비반(BIBAN) 및 프랑스 비바텍 참여’ 등 우리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실 벤처투자과	책임자	과 장	이권재 (044-204-7710)
		담당자	사무관	김석동 (044-204-7714)
			주무관	박준희 (044-204-7717)



□ 7개 선정사

지역	운용사명	개요
미국	SOS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저지 / 서울 구로구 소재 (AUM \$1,314M)</li> <li>· (투자단계) Early Stage(Pre-Seed ~ Series A)</li> <li>· (투자분야) 지속가능 제조산업, 헬스케어, 엔터프라이즈, 컨슈머</li> <li>· (투자지역) 미국 60%, 아시아 20%, 유럽&amp;중동 15%, 기타 5%</li> </ul>
	DC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캘리포니아 먼로파크 소재 (AUM \$4B)</li> <li>· (투자단계) Early ~ Seed</li> <li>· (투자분야) 기술 전반</li> <li>· (투자지역) 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75% / 미국 등 기타 지역 25%</li> </ul>
	G Square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카고 소재 (AUM \$2,092M)</li> <li>· (투자단계) Late Stage, Growth Equity</li> <li>· (투자분야) SaaS, Consumer Internet, Mobility, Fintech, Insuretech</li> <li>· (투자지역) 미국(80%), 유럽/중남미/아시아(20%)</li> </ul>
유럽	Kurma Partners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파리 소재 (AUM €330.3M)</li> <li>· (투자단계) Late Stage, Growth</li> <li>· (투자분야) Therapeutics, Diagnostics, 디지털 헬스, 의료기술 등 4개 영역의 Life Science 분야</li> <li>· (투자지역) European Economic Area,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등</li> </ul>
	Greyhound Capita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런던 소재 (AUM \$709M)</li> <li>· (투자단계) Growth</li> <li>· (투자분야) 핀테크, 소프트웨어, E-커머스</li> <li>· (투자지역) 미국, 유럽, 아시아</li> </ul>
아시아	Headline Asia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도쿄 소재 (AUM \$275M)</li> <li>· (투자단계) Early Stage</li> <li>· (투자분야) 핀테크, SaaS, AI, 이커머스, 물류 등</li> <li>· (투자지역) 일본 60%, 동남아시아·대만·한국 40%</li> </ul>
	MDI(싱가포르)+KB인베스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DI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소재 (AUM \$830M)</li> <li>· KB인베스트먼트 : 서울 강남구 소재 (AUM \$1.6B)</li> <li>· (투자단계) Early Stage(Post Seed to Series A)</li> <li>· (투자분야) Fintech, E-commerce</li> <li>· (투자지역) 동남아시아(주요 타겟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li> </ul>